

[인터뷰-서선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식량·용수·농지·개발에 7676억 원 규모 사업 본격 추진"

윤 강혜란 기자 | 승인 2025.09.09 19:28

제10회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회원대

스마트농업·농지은행·SOC 사업 전방위 투자

안정적 용수 공급 체계 확립



(한국농업신문= 강혜란 기자) 서선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은 '제10회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회원대회'에서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며, 쌀 산업 발전과 농업 기반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경북본부는 올해 식량·용수·농지·개발 분야에 총 7676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충과 농지은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하수담 조성 and 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 농업 SOC 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10회 (사)한국쌀전업농경북도대회’ 축하 말씀.

우리나라에서 쌀이 가진 뜻깊은 의미를 담아, 쌀농업인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열리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경북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간으로, 국가 식량안보와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쌀전업농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쌀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북본부는 올해 식량인프라 1,745억원, 용수관리 1,945억원, 농지은행 2,575억원, 지역개발 1,411억원 집행하여, 연말까지 사업비 7,676억원 달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발전과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사업(영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예천 수직농장 및 곤충단지 등 총 12지구 340억원)과 농·어업인 수요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성주 양서지구 농업생산기반 대전환 스마트용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경북지역 경지면적과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 현황은.

경북본부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 저수지 693개소, 양배수장 808개소, 취입보·관정 등 기타시설 1,040개소와 용·배수로 11,794km의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71,349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저수지는 성주군의 성주호로 총 저수량이 3,824만톤에 달하며, 다음으로 문경시 경천댐은 총 저수량 2,822만톤 규모입니다. 공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저수율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이 가뭄, 홍수 걱정 없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 등 첨단기술 도입에 대한 경북지역본부의 지원 계획은 있는지.

경북본부는 농업·농촌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스마트 농업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시행되는 예천 디지털 농업혁신 타운 조성사업을 예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영천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성주 스마트 원예단지 등 다양한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미래 농업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완공한 전국 최대 규모의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 창업보육센터에서 매년 50명의 청년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임대형스마트팜을 통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용수간선, 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중앙관리소에서 원격 제어하는 「경북권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자동화, 디지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수관리는 물론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스마트농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생산이 보다 쉽게 유통·소비와 연결되는 디지털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데이터 기반 영농 지원 시스템을 결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기후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올 한 해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변화와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봄,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남겼으며, 올여름 전국 곳곳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반면, 강릉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 시대에 식량안보 및 재해예방을 위해 경북본부는 현장 중심의 점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치수능력 확대, 시설물 보수·보강 등 농업 SOC 사업(총 35지구, 873억원)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재난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경북본부-경상북도소방본부 업무협약(MOU) 체결, 낙동강권역 홍수 대응을 위한 수자원 기관 업무 협의 추진 등과 같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지하수댐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댐은 극한 가뭄 상황 속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다각적인 수자원 인프라 확대를 통해 우리 농업과 국가 물 안보를 지켜낼 새로운 수자원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농업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쌀전업농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은.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쌀전업농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과 정책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전업농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재해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재해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구축, 농업용수관리,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 등 공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및 업무협약(MOU)체결을 비롯한 농가 영농규모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시장 안정 등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추진을 통해 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홍보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경북본부는 금년 2,573억원의 농지은행 사업비를 확보하여, 8월 31일 현재 77%인 1,99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지은행 사업을 통하여 생애주기별(관심,진입,성장,위기,은퇴)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지원으로 식량 공급 기반 마련,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농가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은퇴를 돕기 위해 농지를 공사나 신규 농업인에게 매도하여, 1ha당 매월 최대 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본부는 약 162ha의 농지를 이양시켜 고령 농업인에게는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고, 신규 농업인에게 농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쌀전업농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쌀전업농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생산을 통해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주식을 책임지는 식량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언제나 쌀전업농의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쌀전업농 여러분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함께 협력하여, 농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농촌과 희망찬 대한민국의 쌀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강혜란 기자